

포장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교육과 포장관리사교육을 중심으로

Report of Packaging Education

한 업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이루는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일례를 들면 디자인 분야는 해마다 약 만여 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이 각계에서 한목소리로 디자인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과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자원부에 디자인브랜드과가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아이러니지만 디자인브랜드과는 포장 관련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디자인계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에는 그에 걸맞는 고급인력이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되는데 기인한다.

하지만 포장분야의 학교교육은 어떠한가? 4년제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포장전문 인력은 전무하며 현재 2년제 대학에서만 해마다 100여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는 것이 인력의 전부이다.

포장관리사교육 또한 포장 분야의 법적 근거를 상실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주관되고 있다.

각 단체나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세미나, 현장교육 등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가변적이어서 부실하다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장교육

의 현황을 간단하게나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포장교육의 의미를 넓은 개념으로 보면 각 포장 관련 단체,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세미나, 현장교육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범위를 포장에 처음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교육으로 정해 문제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범위를 한정할 때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장교육은 포장관리사교육과 학교 교육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1. 학교교육

1-1. 학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에서 포장(패키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포장관련 전문교육을 하는 곳은 세 개의 전문대학이

〔표 1〕 국내포장관련 전문인력 배출현황(2000년 6월 통계)

구분	인원	비고
포장관리사	1,99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주관
포장기사 1급	15	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포장기사 2급	430	
포장기술사	24	
전문대학 포장전공자	490	기사자격증 소지자 제외

있다(패키지디자인교육 제외).

1993년 설립된 경북과학대학 패키징계열, 199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신성대학 포장공학과, 그리고 올해부터 명칭을 변경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용인송담대학 제지·패키징 시스템과가 있다. [표 2]참조

경북과학대학의 경우 포장공학교육으로는 신입생 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디자인전공을 별도로 분리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성대학은 교과목 편성에서 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응용력 수행 교과목으로 '포장개발프로젝트' 과목에 4시간의 배정이 있을 뿐이다.

이나마도 학생들의 취업 및 취업준비로 실질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2학년 2학기에 배정하고 있어 효과가 의심된다. 용인송담대학은 기존 제지공학과로 운영되던 과를 올해부터 패키징 명칭을 추가해 포장 관련 교육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제지공학 교육의 부수적인 과목으로 포장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류포장 과목이 대다수

여서 타재질 포장 관련 과목이 드물어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각 학교 특성에 맞고 포장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알차게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2년제라는 시간적 한계로 기술적 전문가보다는 기능인의 배출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능(技能)은 기존의 기술을 단순히 적용시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취업후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전문학사 학위를 받는 이들 대학의 취업 현황을 보면 경북과학대학의 95년 1회와 96년 2회 졸업생(대부분의 남학생이 군입대 휴학중이었으므로 여학생 위주)들은 식품관련 22명, 전자관련 24명으로 대부분이 동서식품, 오투기식품, 엘지전자,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 포장부서에 취업을 했다. 대기업 포장관련 부서의 경우 실제로는 4년제 대학 출신자가 수행해야 할 관리분야의 업무도 이들이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상 한계를 드러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사)한국포장학회에서 조사한 포장관련 전문인력 수요 인원 현황에 의하면 국내 업체중 포장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업체는 약 3,109개 업체로 조사되고 있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전문인력 수요는 현재 약 72%의 기업에 독립된 포장부서가 없지만 향후 설치가 예상되므로 부서당 5명 기준으로 약 620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 한해 1~2

[표 2] 국내 대학 포장관련 학과

항목	학교	경북과학대학	신성대학	용인송담대학
학과명칭	포장·디자인계열 포장개발전공	포장공학과	제지·패키징 시스템과	
포장관련 교과목수 (디자인과목제외)	21강좌	23강좌	7강좌	
문제점	포장공학 교육으로는 선호도가 높지않아 디자인계열 신설	교과목에서 응용력적용 과목 미흡	지류포장위주의 교육, 타재질 포장공학포장공학관목 부족	

[표 3] 전문인력 수요업체수 및 수요인원

구분	업체수	수요인원
30대 그룹 계열사(제조업)	174업체	620명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2,935업체	4,403명
식품/ 음료	385업체	
생활용품	670업체	
가구/ 사무용품	85업체	
화학/ 플라스틱제품	470업체	
도자기/ 유리제품	120업체	
전기/ 전자제품	525업체	
금속제품	310업체	
기타	370업체	
합계	3,109업체	5,023명

명의 포장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면 4,403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00명 정도의 포장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표 3]참조

대규모 신규인력의 수요가 예측되고 있지만 기업의 포장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유사공학 관련 전공자(화학공학, 재료공학, 식품공학 등)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포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포장부서를 한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포장기술의 연구 및 발전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1-2. 학교교육의 대안제시

1-2-1. 4년제 대학 설립

국내 산업의 발전과 번영이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들이 주도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년제 교육의 부정이 아니라 포장업계도 발언권을

강화하고 전체 산업분야에서 위상을 높이려면 이에 걸맞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몇몇 단체 및 개인에 의해 4년제 대학에 포장과의 설치를 추진했으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1987년 상공부(현 산업자원부) 주관의 “포장정책기술협의회”에서 포장관련업계, 교육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포장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같은 해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는 “포장교육제도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4년제 대학설치를 주장했으나 1988년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본에 4년제 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1993년 동국전문대학(현 경북과학대), 1995년 신성전문대학(현 신성대학)에 포장과가 설치되면서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그 후 4년제 대학에 포장과 설치하는 (사)한국포장학회를 중심으로 포장관련 단체가 주도하여 급기야 국립대학인 강릉대학교가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까지 얻어냈으나 강릉대학교가 포장과 설치를 포기함으로써 호지부지 되고 말았다.

다행인 것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디자인계열과 공동계열로 모집하지만 포장공학과와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북과학대학교 재단에서도 새로운 4년제 대학의 설립과 동시에 포장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4)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포장학과 비교

경북과외대학	시간	비고	4년제대학	시간	비고
포장개론	3	계열전선	고분자공학	3	전공기초
현장실습	4주	전공필수	고분자공학	3	
플라스틱포장	3	전공선택	현대물리	3	
유리금속포장	2		공학양론	3	
종이판지포장	3		인간공학	3	
식품포장1	2		광고학	3	
포장역학기초	2		경영학개론	3	
식품포장2	3		품질관리	3	
포장개발프로젝트 I	3		포장개론	3	
품질관리	3		플라스틱포장	3	
포장인쇄	2		유리금속포장	3	
포장설계	2		종이판지포장	3	
포장공학	2		포장공정	3	
포장과 물류	3		포장시스템개발	3	
포장실무	3		포장의사전달	3	
포장과 환경	3		포장역학	3	
완충포장	3		식품포장 I	3	
포장태코레이션	3	포장시험 I, II	4	전공선택	
포장개발프로젝트 II	3	포장표준화	4		
전공실무연수	2주	포장인쇄	3		
		포장과환경	3		
		포장자동화	3		
		식품포장 II	3		
		의약품포장	3		
		완충포장	3		
		포장경제학	3		
		포장법규	3		
		포장시험 III	2		
		포장디자인	3		
		물적유통	3		

(비고) 4년제 대학은 (사)한국포장학회의 논문 '포장학과 설립에 관한 연구' 4년제 대학의 포장학과 설치안 참고



포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 포장과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획기적인 지원 없이는 단순히 설치 그 자체로만 끝날 가능성이 많다. 2년제 학교교육과 병행해 4년제 학교교육을 전 포장업계가 실질적인 지원(시험기자재설치, 장학금지원, 취업의뢰 등)이 있을 때만 포장기술과 업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에 포장과가 설치되더라도 과목의 세부적인 이론 과목은, 현재 2년제 대학인 경북과학대학이나 신성대학과 크게 변화될 부분은 없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 포장과 연관된 기본 과목인 유기화학, 고분자학, 물리학을 기초과목으로 교육해 종합적인 위치로 종합학문이자 응용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다. 포장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4년제 대학 내의 포장과 설치하는 포장에 대한 사고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조만간 4년제 대학에 포장과 설치라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본다. [표 4] 참조

1-4-2. 2년제 대학 교육의 특성화

4년제 대학 포장과가 설치되더라도 현재 2년제 대학에서의 포장교육의 역할도 중요하다. 2년제 대학의 포장교육은 실무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론교육에 치중하기는 하나 시수가 적

어 이론 교육은 부실하고 실습교육은 오히려 부정 과목수가 적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북과학대에서는 현재 시도하고있는 인터넷 교육은 www.packschool.re.kr 의 사이트를 통해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해 재학생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전문대에서는 4년제 대학과 비교되는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2. 포장관리사 교육

2-1. 관리사교육의 문제점.

현재 포장관리사교육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주관하고 있다.

포장에 처음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기본 교육인 관리사 교육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진흥원 측의 수익사업 형태의 통신(우편)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포장업계 전체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1968년부터 시작된 포장관리사 교육은 1998년 정규교육과정(수강생 6명)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통신(우편)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우편)교육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다.

관리사자격증은 APF(아시아포장연맹)의 인증자격증으로 해외에서도 통용된다. 진흥원 측은

올해 4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인 'e-design아카데미'에 디자인 분야 교육뿐만 아니라 포장관리사교육을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고 정규교육도 부활할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다.

진흥원의 입장도 포장관리사교육이 수익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흥원 자체예산으로 교육이 행해지고 있어 타사업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 측은 현재 포장관련단체에서 포장관리사교육을 이관해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야 수익만을 노리고 이관해 가려한다"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흥원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오히려 진흥원이 포장관리사교육을 명맥이나마 유지시킨 것을 포장인들이 감사해야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관리사교육의 문제는 이런 한 가한 문제를 따지고 있어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계속 진흥원이 관리사교육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2-2. 포장관리사 교육의 발전방안

1995년 '산업디자인·포장 진흥법'의 포장분야 삭제이후 포장관리사 교육은 디자인단체가 행하는 정체불명의 교육으로 행해져왔다.

이제는 포장 관련 단체가 포장관리사 교육을 이관해 오는 것은 마땅하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의 하나가 과연 어떤 단체가 관리사 교육을

이관해 오는냐 하는 것이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는 산업자원부에 '포장기술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의욕적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 또한 최근 포장관리사회를 부활시키고, 은연중 포장관리사교육을 주관했으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사)한국포장협회와 (사)한국포장개발연구원과의 통합과도 연계되어 있어 당분간은 포장관리사교육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차후 어떤 단체가 관리사 교육을 이관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수하는 단체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통신(우편)교육으로 행해지는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신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 교육 병행, 강사진의 대폭적 보강으로 포장기술사 등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흥원측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대학강좌 형태의 교육도 고려할만한 교육형태이다.

정규 4년제 대학교육에서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올해 신입생부터 전면적인 사이버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개교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장단체들도 시대에 부응 사이버 교육 또한 적극 고려, 이론은 인터넷교육으로 실습 교육은 직접 포장의 현장에서 행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정부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에 맞는 인터넷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로는 예산의 지원도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그 어떤 포장단체도 인터



넷전문인력을 보유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과 연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교육 'e-design'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건상 이관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교재개발, 강사진 보강에 포장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현장실습은 포장단체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산업자원부와 진흥원에 포장관리사교육의 전면이관을 주장하기 전에 포장인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아무런 준비와 대안 없는 이관은 또 다른 부실 포장관리사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짧게나마 학교교육과 포장관리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봤다. 문제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한가지이다.

포장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장단체가 나서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포장업계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포장업계에 당면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지만 교육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10년, 20년 후의 포장업계를 기약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훗날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ko]

〈박기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835-9041-5